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¹⁾

황세영 선임연구위원
김정숙 선임연구위원
최정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 조사목적** 청소년의 환경역량 발달 실태, 학교 안팎 및 가정에서의 환경교육·활동 실태, 환경교육·활동의 방해 요인 및 문제점, 환경교육·활동에 대한 목표 의식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8,916명
- 조사방법** CASIC(computer-assisted survey information collection) 기반의 학교 방문 집단면접 설문
- 조사기간** 2024년 5~7월
- 조사내용** 환경역량 발달 실태, 환경교육·활동 실태, 환경교육·활동의 방해 요인 및 문제점, 환경교육·활동에 대한 목표 의식, 인구학적 변인 등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 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청소년의 환경역량 실태

표 1 본 연구의 환경역량 개념 및 세부 영역

환경역량 구분		개념	세부 영역
2022 개정 환경과 교육과정에 기초,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환경역량을 측정함.	환경 감수성	환경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환경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	가치와 태도
			지식과 이해
			기능과 과정
	시스템사고	환경을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	가치와 태도
			지식과 이해
			기능과 과정
	협력과 공동체 역량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환경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	가치와 태도
			지식과 이해
			기능과 과정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적용하는 능력	가치와 태도
			지식과 이해
			기능과 과정
	환경 정보 활용 능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도구나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가치와 태도
			지식과 이해
			기능과 과정

■ [환경 감수성]

- (종합) 종합 점수(12점 만점)는 초등학교(9.31점)와 고등학교(9.25점)이 유의한 차이 없이 중학생(9.03점)보다 높게 나타남.
- (가치와 태도) 초등학교(3.13점)이 중·고생(각 3.00점)보다 높음.
- (지식과 이해) 고등학교(3.34점), 초등학교(3.24점), 중학생(3.20점) 순으로 점수가 낮아짐 (고>초>중).
- (기능과 과정) 중학생(2.83점)이 초·고등학교(각 2.93점, 2.90점)보다 낮음.

■ [시스템사고]

- (종합) 종합 점수(12점 만점)는 고등학교(9.26점)이 초등학교(8.98점), 중학생(8.87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 (가치와 태도) 초등학교(3.18점)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3.10점), 중학생(3.04점) 순임 (초>고>중).
- (지식과 이해) 고등학교(3.16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2.99점)와 중학생(2.99점)은 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낮음 (고>초, 중).
- (기능과 과정) 고등학교(2.99점)가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2.84점), 초등학교(2.81점) 순으로 나타남 (고>중, 초).

■ [협력과 공동체 역량]

- (종합) 종합 점수(12점 만점)는 환경학교의 고등학생 집단(9.63점)이 가장 높았고, 일반학교의 중학생 집단(9.3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치와 태도) 학교급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초등학생(3.37점), 고등학생(3.32점), 중학생(3.31점) 순으로 나타남.
- (지식과 이해) 고등학생(3.13점)이 초등학생(3.06점), 중학생(3.04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고>초, 중).
- (기능과 과정) 학교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 작용이 나타남. 환경학교 고등학생(3.17점)이 가장 높았고, 일반학교 중학생(3.03점)이 가장 낮음.

■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 (종합) 종합 점수(12점 만점)는 초등학생(9.37점)과 고등학생(9.45점)이 중학생(9.22점)보다 높음.
- (가치와 태도) 초등학생(3.29점)과 고등학생(3.27점)이 중학생(3.19점)보다 높음 (초, 고>중).
- (지식과 이해) 고등학생(3.13점)이 초등학생(3.07점), 중학생(3.04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고>초, 중).
- (기능과 과정) 고등학생(3.05점)이 초등학생(3.01점), 중학생(2.98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고>초,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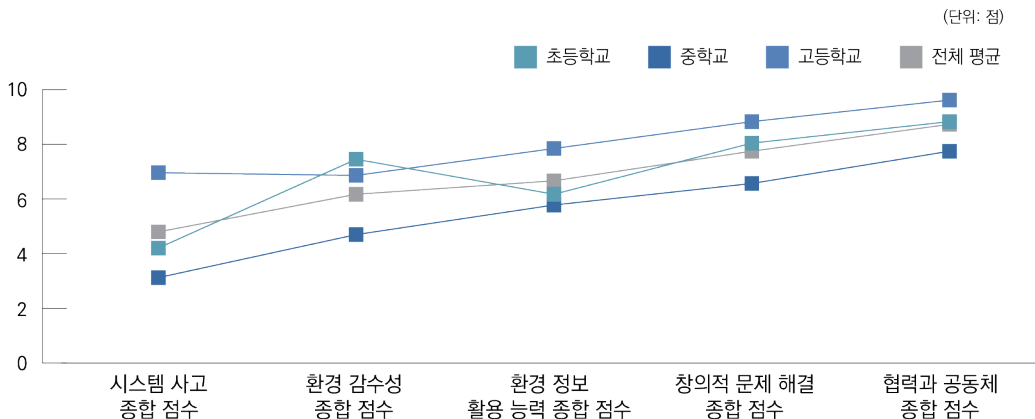
■ [환경 정보 활용 능력]

- (종합) 종합 점수(12점 만점)는 고등학생(9.35점)이 초등학생(9.18점), 중학생(9.14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 (가치와 태도) 초등학생(3.27점)이 중학생(3.16점), 고등학생(3.16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초>중, 고).
- (지식과 이해) 고등학생(3.06점)이 중학생(2.94점), 초등학생(2.90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고>중, 초).
- (기능과 과정) 고등학생(3.13점)이 중학생(3.04점), 초등학생(3.01점)보다 유의하게 높음 (고>중, 초).

■ [종합]

- (학교급별 경향) 5개 환경역량의 종합 발달 수준은 학교급에 비례하여 발달하지 않음. 중학교 시기에 환경역량의 상승 추이가 사라지거나 하락하고, 고등학교 진학 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역량 영역별 불균형) 초·중·고교생 공통으로 '가치와 태도'(정의적 측면)의 발달 점수는 가장 높았으나, '경험, 성찰, 참여, 실천' 등 '기능과 과정'(기술적·행동적 측면)의 발달 점수는 가장 낮음. 이는 청소년들이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지식), 감수성이나 공감(가치와 태도) 등은 발달했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기술적·행동적 역량은 비교적 취약함을 의미함.

그림 1 학교급에 따른 환경역량 종합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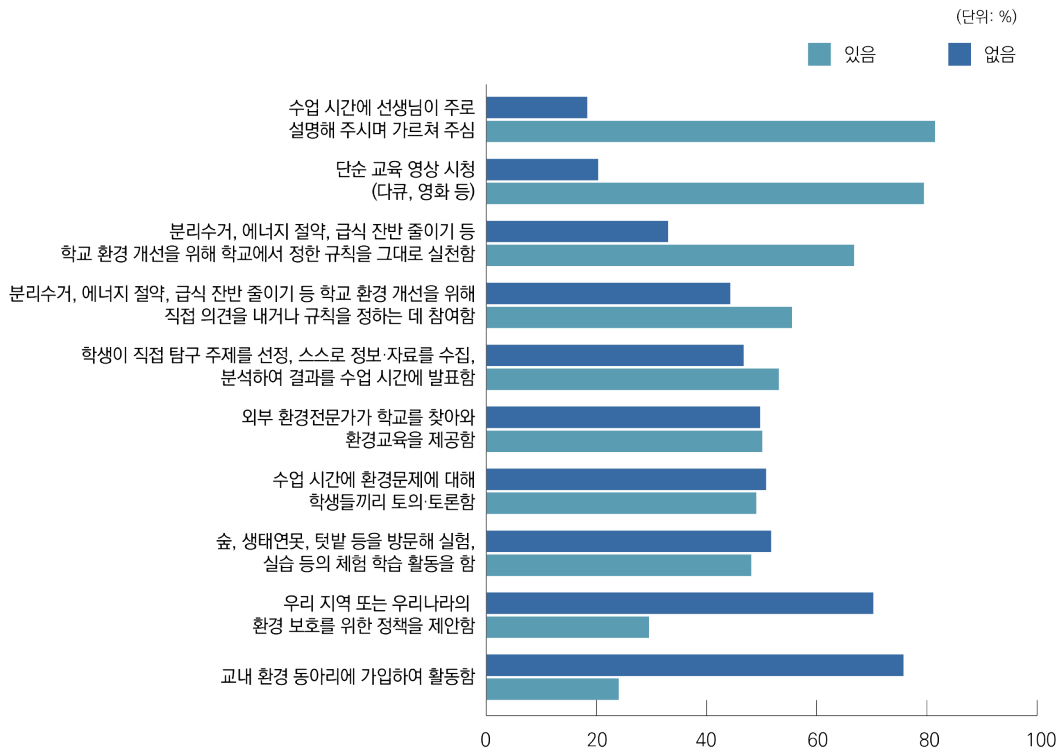


2 청소년의 환경교육·활동 실태²⁾

■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

- (경험 실태) '수업 중 선생님 강의'(81.6%), '단순 교육 영상 시청'(79.6%) 등 수동적 학습의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교내 환경 동아리 활동'(24.1%), '지역사회/국가 정책 제안'(29.6%) 등 주도적 활동의 경험 비율은 저조함.
- (만족도 및 환경 실천 도움 정도) '단순 교육 영상 시청'(만족 3.12점, 도움 2.96점)은 특히 도움 정도가 가장 낮지만, '숲, 생태연못 체험'(만족 3.31점, 도움 3.18점)과 '교내 환경 동아리'(만족 3.29점, 도움 3.23점) 등 주도적·체험형 활동에서 만족도와 효용이 모두 높게 나타남.
-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³⁾)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이 청소년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환경교육·활동이 뻔해 새롭게 배울 내용이 없음'(47.8%)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2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 경험 실태



2) 청소년의 환경교육·활동 실태를 학교 기반, 학교 밖 기반, 가정 기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3) 해당 조사는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가운데 자신이 참여한 환경교육·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한 응답자 기준으로 이루어짐.

그림 3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 경험의 만족도 및 환경 실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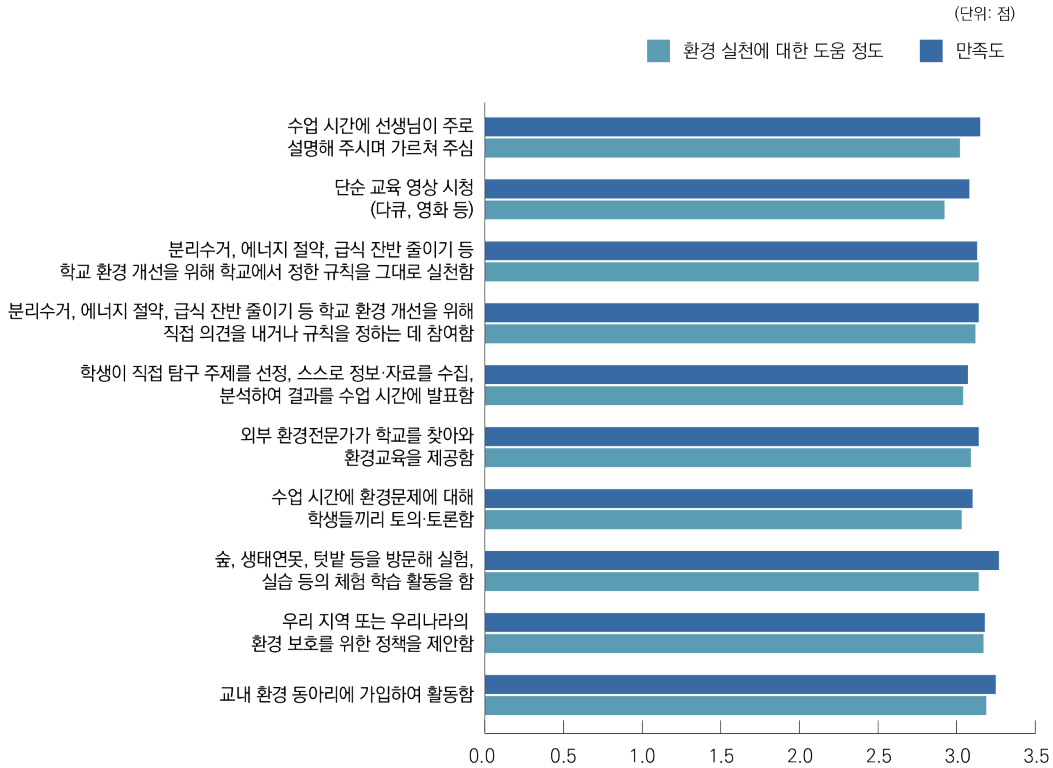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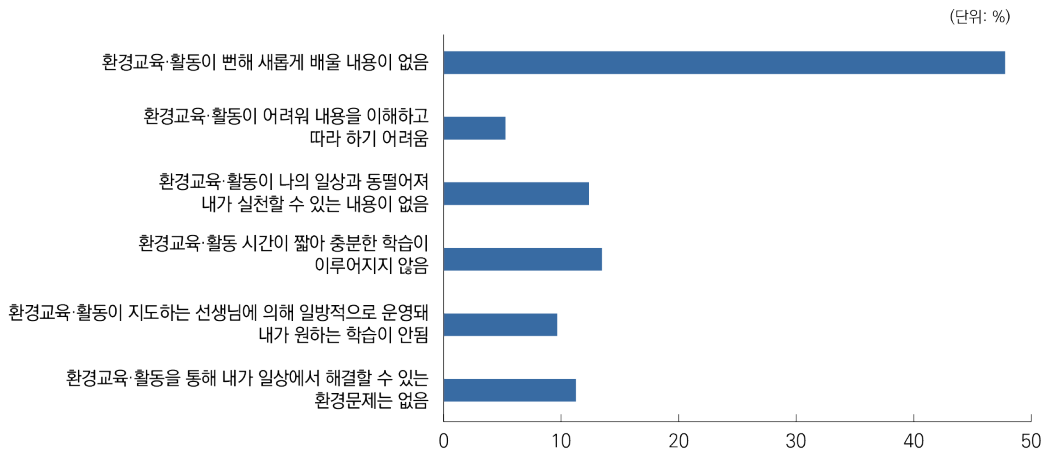


그림 4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이 청소년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



학교 기반 환경교육·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가운데 자신이 참여한 환경교육·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한 응답자 기준.

■ [학교 밖 기반 환경교육·활동]

- (경험 실태) '유튜브, 다큐멘터리, 책 등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38.3%)을 제외한 모든 활동의 경험률이 30%대 초반이거나 그 미만으로 저조함. '청소년단체나 환경단체 활동'(20.9%), '환경보호 정책 제안'(18.1%) 등 조직적·사회적 참여 경험은 매우 낮음.
- (만족도 및 환경 실천 도움 정도) 활동 유형 간 큰 차이는 없으나(3.2~3.3점대),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만족도와 도움 정도 인식이 유의하게 높음.
-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학교 밖 기반 환경교육·활동이 청소년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환경교육·활동이 뻔해 새롭게 배울 내용이 없음'(32.1%)이 1순위로 지적됨. '일상과 동떨어져 실천할 내용이 없음'(18.4%)이 2순위로 나타남.

그림 5 학교 밖 기반 환경교육·활동 경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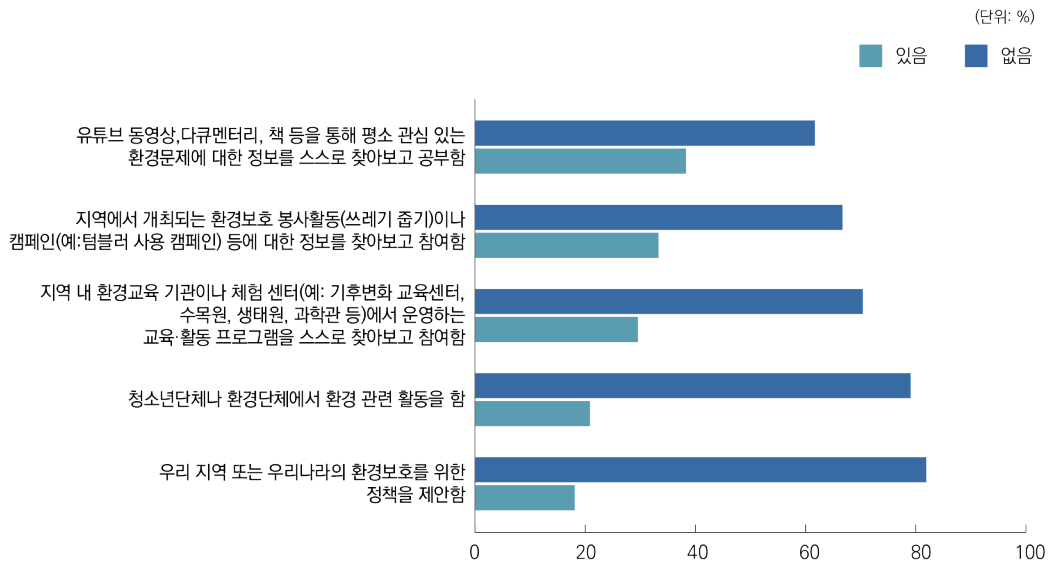


그림 6 학교 밖 기반 환경교육·활동 경험의 만족도 및 환경 실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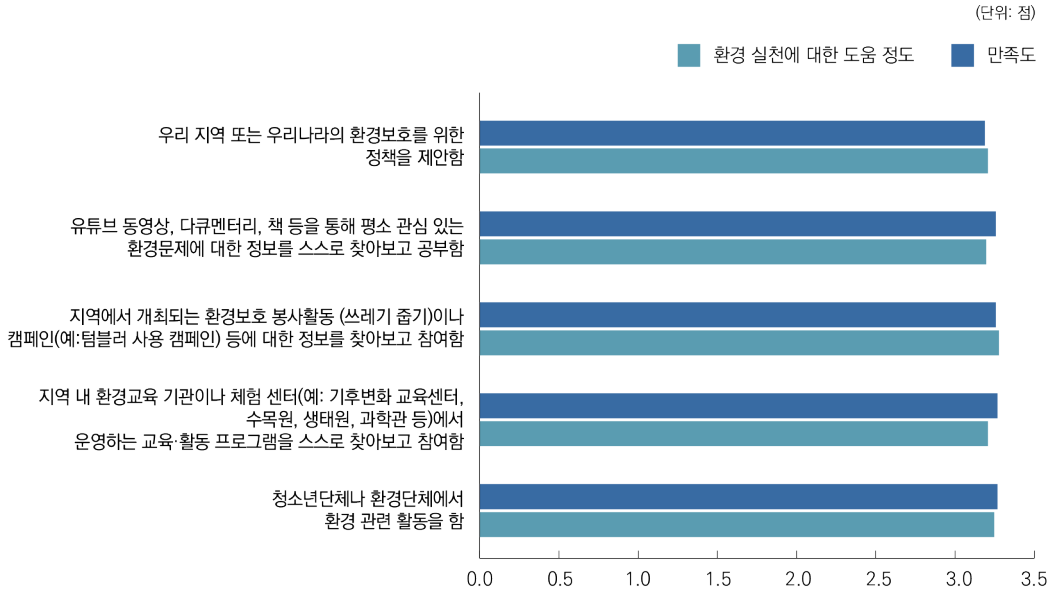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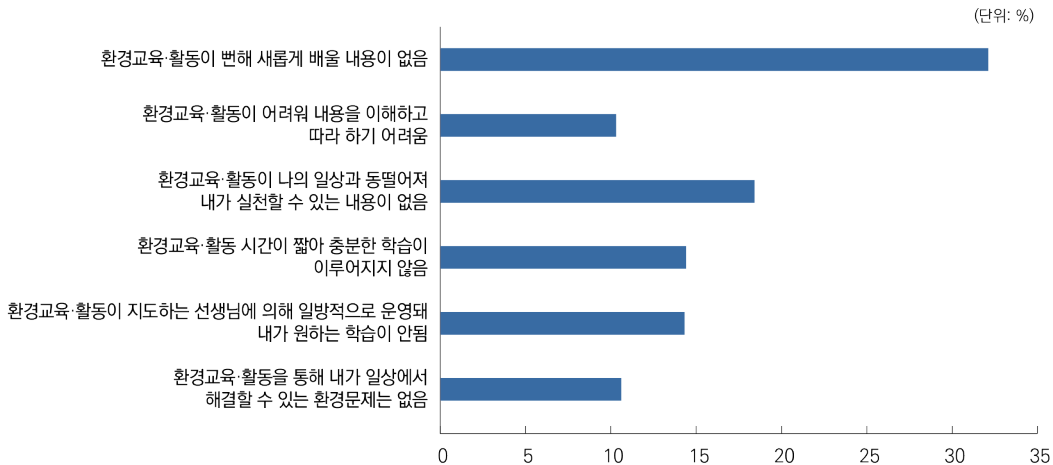


그림 7 학교 밖 기반 환경교육·활동이 청소년 환경 실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 [가정 기반 환경교육·활동]

- (부모/보호자의 실천) 과반수의 청소년은 평소 부모님(보호자)이 가정에서 중고품 활용, 수리를 통한 물건 재활용, 친환경 제품 구매, 친환경 식재료 구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
- (청소년 본인의 실천) 평소 가정에서 '분리 배출'(81.7%), '음식물 쓰레기 감소 노력'(75.7%) 등은 높으나, '일회용품 사용 지양'(48.3%), '에어컨/히터 적정 사용'(48.8%) 등은 50%에 못 미침.

그림 8 평소 부모님(보호자)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환경 실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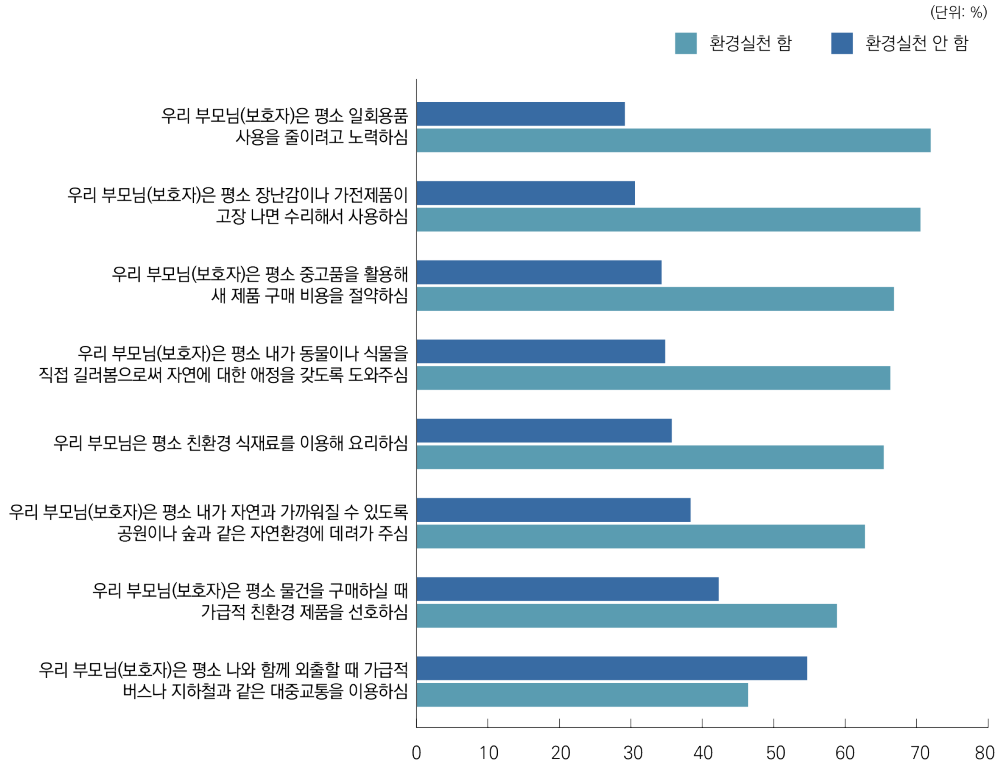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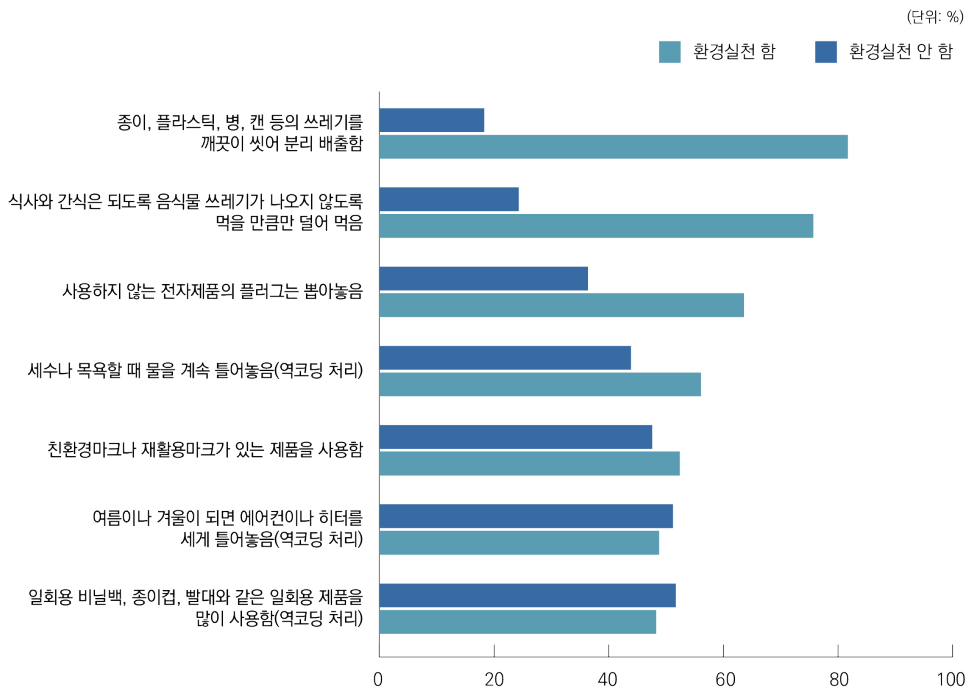


그림 9 평소 청소년 자신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환경 실천의 수준



■ [종합 및 시사점]

- (경험 편중) 청소년의 환경교육 · 활동 경험은 '학교 밖'보다 '학교 기반'에 치우치는 경향이 확인됨.
- (학교 내 경험 불일치) 학교 기반 활동 중 '강의'나 '영상 시청' 등 수동적 활동은 경험률(79% 이상)이 높으나, 청소년이 체감하는 실천 효용(도움 정도)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교 내 주도성 부족) 반대로 '학생 간 토의 · 토론', '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등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강조되는 활동의 경험률은 30%에 못 미침.
- (핵심 문제점) 활동의 효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들은 '교육 · 활동의 식상함'(뻘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학교 밖 활동의 필요성) 학교 밖 기반 활동은 경험률은 낮으나, 학교 기반 활동보다 만족도와 효용(도움 정도)이 근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시사점) 청소년의 자율적 · 주도적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는 학교 안팎의 환경교육 · 활동을 연계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3 환경교육·활동에 대한 니즈, 목표 의식 및 장애 요인

■ [환경교육 · 활동에 대한 니즈]

- (최고 선호 활동)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활동은 '숲, 생태연못, 텃밭 등을 방문해 실험, 실습 등의 야외 체험 학습 활동'(32.9%)으로 나타남.
- (긍 · 부정 인식차) '야외 체험 학습'은 '가장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32.9%)이 '가장 불필요하다'는 부정 응답(7.1%)을 25.8%p 차이로 압도함. 이는 모든 항목 중 가장 큰 긍 · 부정 인식차로 해당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호응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 이와 함께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의견을 내거나 규칙을 정하는 데 참여'(8.3% 필요 vs 6.2% 불필요) 등 긍정 인식이 부정 인식을 앞서는 활동도 일부 존재하나 해당 활동의 긍 · 부정 인식 차이는 모두 2%p 내외로 미미한 수준임.
- (시사점) 그 외 다수 활동은 필요하다는 인식보다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 현재 많은 환경교육 · 활동이 수요자인 청소년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환경교육 · 활동에 대한 목표 의식]

- (선호 역량) 청소년이 가장 함양하고 싶은 역량은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25.0%), '협력과 공동체 역량'(22.9%), '환경 감수성'(22.3%) 순으로 나타남. '시스템사고'(17.5%)와 '환경 정보 활용 능력'(12.3%)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선호 역량 차원 - 기대와 현실의 괴리) 역량의 세부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현행 활동에서 '지식과 이해'(40.0%)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가장 함양하고 싶은(기대하는) 차원은 '기능과 과정'(40.1%)으로 나타나,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 (학교급별 차이) 이러한 선호도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초등학생은 '환경 감수성'과 '환경 정보 활용 능력' 선호가 두드러진 반면, 중 · 고등학생은 '협력과 공동체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함양 선호를 보임. 세부 차원에서도 초등학생은 '지식과 이해'(인지적 차원)를, 중학생은 '가치와 태도'(정의적 차원)를, 고등학생은 '기능과 과정'(기술 · 행동적 차원)을 선호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임.

그림 10 환경교육 · 활동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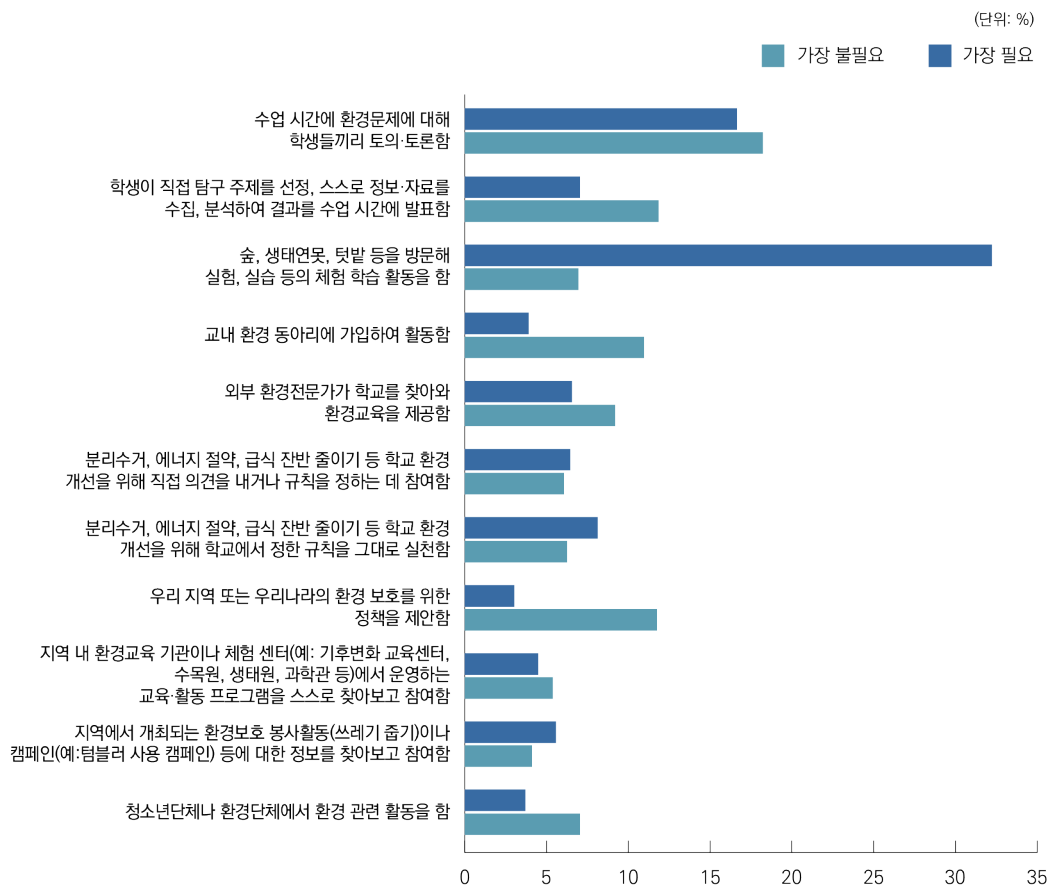


그림 11 가장 함양하고 싶은 환경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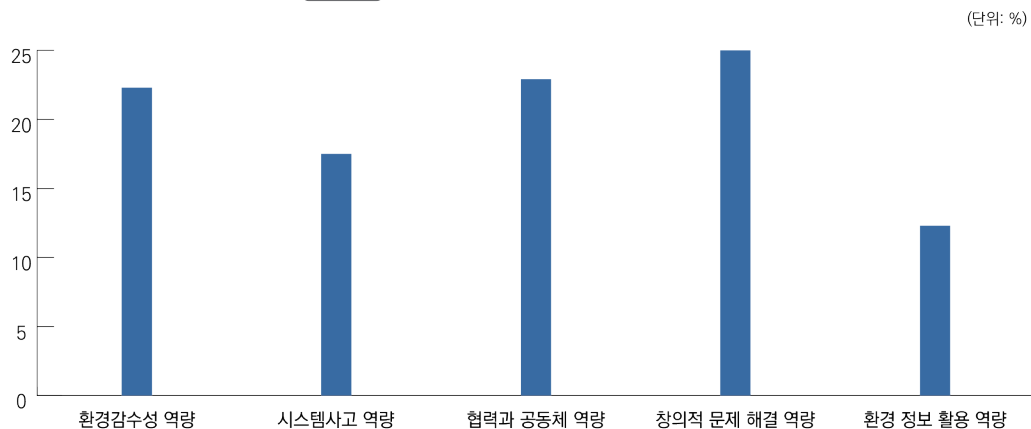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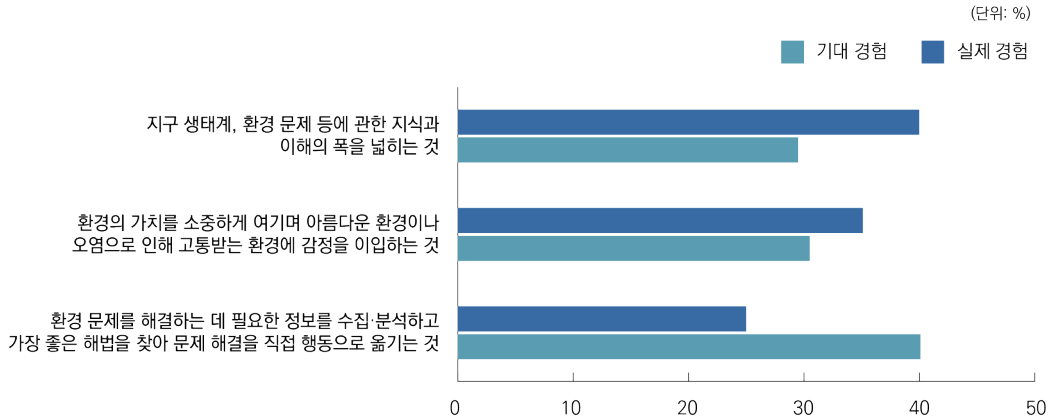


그림 12 가장 함양하고 싶은 환경역량의 세부 차원과 실제 경험하는 환경역량의 세부 차원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과 과정 기준) 비교



■ [환경교육 · 활동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

- (전체 응답자 인식) 청소년이 환경교육 · 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참여할 시간이 없음’(38.8%)으로 집계됨. 이어서 ‘마음에 드는 환경교육 · 활동이 없음’(16.8%), ‘학교 공부(학업)에 방해가 됨’(12.2%)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 한편, 이러한 장애 요인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초등학교의 경우 ‘참여할 시간이 없음’, ‘정보를 찾기 어려움’, ‘내용이 어려움’, ‘장소 접근성이 불편함’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특징적으로 높음. 중학생의 경우 ‘마음에 드는 환경교육 · 활동이 없음’(식상한 커리큘럼)과 ‘장소 접근성이 불편함’ 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공부(학업)에 방해가 됨’, ‘지도하는 선생님(강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됨’, ‘참여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음’ 등 학업 및 입시 관련 요인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합 및 시사점]

- (수요자 니즈 파악) 청소년의 호응이 가장 높은 활동은 ‘야외 체험 학습 활동’이었음. 현재 많은 활동이 청소년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수요자 니즈가 높은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됨.
- (균형 발달 필요) 청소년은 ‘창의적 문제해결’, ‘협력과 공동체’ 역량 함양을 선호하는 반면, ‘시스템사고’, ‘환경 정보 활용’ 역량에는 관심이 적어 균형 잡힌 환경역량의 발달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학교급별 맞춤) 환경역량의 세부 차원에 대한 선호(초등: 지식 / 중등: 가치 / 고등: 기능)와 참여 장애 요인 인식이 학교급별로 뚜렷하게 나뉨. 이는 학교급별 니즈와 문제점에 맞춘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13 학교 안팎 환경교육·활동 참여의 가장 어려운 점

